

논 소득기반다양화사업 참여농가 신청 접수

고성군은 쌀수급 안정과 타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2월 21일까지 2011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참여농가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자는 2010년 쌀소득 등의 변동직접지불금 대상 논에 2011년부터 벼 이외의 타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와 2010년 논농업 다양화사업에 참여한 농가다.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한 뒤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최광호 기자

고성출신 이화길씨 농업경영인 도 회장에

고성 출신 이화길씨가 한국 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제1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농업경영인도연합회는 지난 25일 오후 춘천 우두동 도농업인 단체회관 2층 선관위 사무실에서 부재자 투표로 실시된 임원선거 결과 이화길씨(48세, 사진)가 제1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화길 신임회장은 고성고를 졸업하고 강원대 농업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했으며, 한농연 고성군연합회장과 고성군 농정심의위원을 역임했다.

이화길 회장은 “구제역 여파로 축산업계의 피해가 심해 농가들의 어려움이 큰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부에 보상책 마련을 요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업인단체와 연대를 강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승근 기자

구독·광고 문의
☎681-1667

설 제수용품은 재래시장에서

간성·거진시장 값싸고 질 좋은 상품 많아... 기관단체 장보기 운동 전개

고성군은 설을 앞두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전통시장 상권회복을 위해 고향의 향수와 후한 인심이 가득한 전통시장에서 명절 준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설맞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전개한다.

이에 따라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유관기관·단체, 공무원 등이 출선수범해 전통시장 이용을 실천하고, 주민들에게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군수와 부군수를 비롯해 실과소장 및 직원, 유관기관·단체 등이 26일 거진시장과 27일 간성시장을 직접 방문해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

이에 발맞춰 간성·거진 전통시장 상인회는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값싸고 질 좋은 제수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상품권 이용고객에게는 텀주기 행사도 전개한다.



간성 장날인 지난 27일 고성군청 공무원 등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간성 전통재래시장을 찾아 장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승근 기자

한편 고성군은 지난 17일부터 2월1일까지 제수용품과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개인서비스 대책을 주찬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내 사람 심기’ 인사 감사한다

행안부 2011년 감사계획 발표... 토착비리 개연성 높은 사무 중점감사

정부는 2011년부터 단체장의 ‘내 사람 심기’ 승진·전보 행태와 단체장·지방의회·언론 등과 밀착된 계약체결 또는 특정인을 의식한 예산지원 등 토착비리 개연성이 높은 사무에 대해 중점 감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공정사회 조성을 위한 ‘중앙·지방 감사관계관 회의’를 열고, 토착비리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 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1

년도 감사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제식구 감싸기식’의 온정적 처벌을 타파하고 엄정한 일벌백계 처벌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징계혐의가 명백한 자를 인사위원회에서 가볍게 징계한 경우 반드시 관할 인사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도록 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치단체장을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치단체장 또는 자치단체가 경고 처분을 받으면 재발 방지를 위해 그 처분내용과 이행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친서민 정책관련 행정처리를 지연하거나 소외계층에 대한 보조금 집행 등의 적정성 여부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도 중점 감사한다.

박성일 행정안전부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감사관은 그러나 “지자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책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고, 일선에서 맡은 바 직무를 열심히 수행한 공무원 발굴해 포상하는 등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해양심층수로 만든 ‘고성태’ 판매

포장재 포함 10마리 만원... 숙취해소 탁월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해풍건조복어인 ‘고성태’가 지난 26일부터 명태건조장 조성 시범운영 단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고성태’는 냉동명태를 해양심층수에 20~30시간 동안 담가 해동한 후, 할복해건조틀에 걸어 40~60일동안 해풍으로 말리면서 다시 3~5회 가량 해양심층수를 뿌리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성태’는 일반수돗물을 사용한 복어보다 마그네슘 성분이 1.5배, 숙취해소 및 독소를 배출하는 함황 아미노산 성분이 5배 정도 높고 동물임상실험결과 ALDH성분을 더 활성화·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숙취해소에 탁월한 것으로 입증됐다.

‘고성태’의 가격은 포장재를 포함해서 10마리당 1만원이다.

최광호 기자



지난 2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4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심층수 산업발전협의회가 열렸다. 박승근 기자